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PT & Critic 녹취록

#### PT & Critic Reunion : 2014-15 <몽상가들 Dreamers>

일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4: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작가 : 백경호, 윤병주, 천창환

패널 : 김성우(전시기획, 아마도예술공간 책임 큐레이터), 김연용(작가)

윤병주 :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작업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 12년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존의 작업들은 사진 위주였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2013년 이태원에 살면서 했던 작업들이고 이슬람 사원이라는 랜드마크를 기점으로 주변에 사는 한국인, 이슬람 사람들 등 다양한 인종들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제가 살았던 집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저에게 생경하게 다가오는 것들이나 익숙한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워낙 유명한 동네가 되어서 생경한 풍경은 아니지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이태원이라는 동네와 이슬람 문화는 굉장히 생경했고 매스 미디어에서 얻어진 선입견이 문제가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 꼬마 아이가 물총을 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를 비롯하여 우연치 않게 밀리터리룩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 등 매스 미디어에서 주어지는 폭력적인 것들, 테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동네 주민일 뿐인데 선입견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불쾌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인데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면지 이런 묘한 감정의 장면들을 많이 넣었다가 나중에는 동네를 탐험하는 쪽으로 작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성이라는 작업인데, 어느 시기에 친구를 따라 저렴한 월세 방을 찾아 이사했고 경기도 화성의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도시 풍경을 보면서 언어유희적인 발상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 이 작업을 했고 사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재현적인 지점에서 거짓말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사진 위주로 작업을 해나가다가 도중에 휴학하고 작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에 불현듯 재현적인 작업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을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있는 상태로 무선 조종 자동차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경기도 화성 공사현장을 탐사하는 퍼포먼스를 하여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이동 경로를 기록했고 대형크기의 사진작업이라기 보다는 마치 탐사하는 것 같은 기록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별 볼일 없는 발견물들을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일종의 대지미술 같지만 우주의 화성에 대한 세계적인 에피소드 하나인 화성 인면암이라는 얼굴 형태를 위성에서 촬영한 것을 인용해 직접 경기도 화성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항공촬영을 한 작업입니다. 화성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은 전시 기회를 갖게 되어 열흘 동안 했었는데 기간이 짧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전시장에 마이크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설치해 전시되는 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의 공사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그 곳의 풍경들을 실시간으로 전시장에 송신하고 전시장에 있는 분들은 마이크로 "어디 가세요? 지금 뭐하세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치 달을 탐사하듯이 라이브하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2년 넘게 흘렀고 공부에 욕심이 생겨 대학원에 진학해 다양한 매체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작업을 다시 재밌게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 장치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이민도 여러 번 다녀오고 한국에서 저렴한 월세 방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는데 즐거움을 주기도 했지

만 어떤 때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대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고 방황하게 된 것이 이민에 대한 역사 때문인데 이러한 개인적인 지점들을 작업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좋아했고 15, 16세기에 유럽 열강들이 식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시기인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항해를 하는 게임입니다. 항해의 목적은 모험, 무역, 전쟁 등 여러 가지이고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저의 환경적인 영향이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2D로 탐부에서 바라보는 장면이었다면 2009년 최신 버전은 3D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항해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본 개발자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가져와 연계하여 편집했고 이번 전시의 영상작품으로서 이 지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줄이 쳐져있는 부분은 저의 항해 경로입니다. 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게임을 하면서 이동했던 경로들을 누적시켰고 흰 선은 영상이 상영될 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출발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가는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전시 준비 중에 제가 역마살을 타고났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점을 한 번 봤었는데 무당이 역마살을 타고 났다며 남쪽으로 가면 밥 먹고 살 수 있고 동쪽으로 가면 망하고 북쪽으로 가면 죽고 서쪽으로 가면 보배가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의로, 남의 말을 듣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가 911테러 등의 여러 이유로 차선책으로 아르헨티나를 가게 되었던 것을 반영하여 영상에서 서쪽의 목적지를 아르헨티나로 설정하였습니다.

<Home coming day>는 하나하나의 사진작업이라기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작업이 되는 형태인데 이민 혹은 여행을 갔었을 때 촬영했던 이미지를 무작위로 선별해 넣었습니다. 집에서 사진들을 걸어놓고 옛날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 때를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지구본>이라는 작업은 방 한 칸에 머물러 있곤 하는 지구본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자주하던 놀이를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지구본을 돌리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구본 돌리는 모습을 영상 위쪽에 형상화했고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개인적인 서사입니다. 설명적이지 않고 조형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형태를 다듬었습니다. 이민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사건 등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을 넣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작업들은 기존의 작업에서 벗어난 형태로 다음 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백경호 : 안녕하세요. 기존의 작품, 전시 이미지, 과정 중에 있는 작업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5년에 <Cast away>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던 작업과 현재 설치한 작업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변화된 지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일상에서 작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어떤 재료가 필요해서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이미지나 어떤 것들이 쓰이게 될 지를 먼저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검색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포토샵을 이용해 편집을 했었고 작업하는 중 그림 위에 다른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에 몇 개의 전시들을 끝내고 작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고르고 편집할 때 재미있는 요소가 생기는데 이미지를 텍스트로 생각하면 읽을 수 있는 것들이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의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담겨있었고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며 작업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재현하고 구성하는 작업이지만 표면을 얇고 납작하게 처리하지 않고 물감을 두텁게 이용해서 개별 이미지가 품고 있는 질감을 달리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화면의 텍스처, 잡지에 실린 사진의 매끈한 텍스처 등을 혼성적으로 하나의 캔버스 화면에 담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질감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질감을 확대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영박물관에 여행가서 모아이 석상을 보고 임팩트 있는 회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화는 보통 벽에 걸리잖아요. 공간에 놓지 않

고.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만 했었어요. 그 후에 몇 년이 지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실에 원형 캔버스 사각 캔버스 따로 따로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조각 맞추듯이 연상 작용을 해서 몸통에 사람 머리도 달려있고 팔다리도 달려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간으로 끌어 와서 평면처럼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 변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작업으로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붓질과 스트라이프를 활용하는 작업도 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전시장 설치장면입니다. 둥근 캔버스의 얼굴은 보통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빈 캔버스에 어떤 표정을 그려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깐 머뭇거리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표정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를 진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탄을 들고 무작정 막 그렸어요. 처음에는 직선적이고 무뚝뚝한 표정이었는데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을 두고 작업실 한 칸에 놓고 지켜봤는데 좀 오랫동안 볼 만한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미소'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 잘 읽히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해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드로잉을 통해서 각 요소들의 비율도 고려하고 또 그 안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일지 좀 미리 생각을 하였는데, 처음해보는 거라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에 맞는 크기의 캔버스를 배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윗부분에 달려 있던 원형캔버스가 아래쪽에 배치되는데 작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가 작업이 품고 있는 결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를 허용하는 편이라서 작업 도중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15년에 진행을 했었던 작업이에요. 이 전과 좀 다른 점은 캔버스를 지탱할 수 있는 좌대 부분을 빼대처럼 새로 제작을 했어요. 형태나 구성 요소가 간략해지고 캔버스 내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어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받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 척추 뼈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하려고 좌대를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들은 현재 작업 중인 작업실에서의 작품들 사진입니다. 작업실 한 면에는 머리 부분만 있고요.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원형캔버스와 사각형 캔버스를 세트로 구성을 해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요. 이 작업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린 부분에 맞게 캔버스를 제작하고 그 부분만 잘라서 붙이는 작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추상 페인팅도 같이 해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없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랬던 그림이 제가 다른 그림을 그릴 때, 소스처럼 활용이 되거나 구성이나 작은 표현방법들을 참조하면서 다른 작업에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작업들을 진행 하면서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표현 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다 그렸을 때 드러나는 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인팅 작업은 미술관 안에서 기념비적 오브제로 속성을 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한 때를 행위를 통해 유추 할 수 있고 그 마음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재하고 있는 작업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외의 어떤 별도의 텍스트나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제하고 제가 품은 처음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분집했을 때 어떤 풍경이 될까,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창환 :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작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전시 <BURST>의 이전 작업들, 그리고 <BURST>전시, 그 사이의 프로젝트, 2016년도의 전시까지 연결이 되기에 꼭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작품들은 <함께 그리다>라는 시리즈로 대학교 졸업할 즈음의 그림들입니다. 일단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요. 즉흥적인 그리기도 좋은데, 그림을 그리다보면 여러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부 때와 대학원 시기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한참 무언가를 보고 그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 질문이 많을 때 그린 작업입니다. 하루는 저까지 포함해서 9명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장면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하나를 고민하다 즉흥적으로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지금 보

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아니면 멍 때리고 있다가 우연히 시선에 들어온 것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각자 드로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드로잉을 받고 겹쳐서 캔버스에 합쳐서 그려봤던 작업입니다. 뭔가 한 공간을 내가 하나의 시점으로 그려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추상작업처럼 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왜 염소를 선택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1년 정도를 처음 만난 사람이건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만나게 되면 염소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8명의 사람들에게 드로잉을 받고 겹쳐서 전 작업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뭔가를 그리는 동안 하나를 그리고 있으면 그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을 거고, 뭔가 명확하게 한 장면을 캡처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들을 일부로 여러 번 나눠서 파편화 시킨 작업들 <뒤섞다> 연작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업은 자화상인데 한 달 동안 천 하나를 나누고 거기에 제 얼굴을 하루 동안 그립니다. 그런데 천을 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상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섞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구긴 천에 그리고 펼치고를 한 달 동안 반복했어요. 그 결과물이 이런 거구요. 그래서 파편화되어 제 온전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저걸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린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도시풍경 속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들, 그날 제가 꽃혔던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드로잉을 하거나 사진으로 모은 이미지들을 섞어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어쭙잡게 밴드 한다고 설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을 그린 것인데, 그 친구들 얼굴과 그들이 다른 악기를 섞어서 그린 작업입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그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그럴지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건인데, 이제는 편해져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 많이 복잡해서 남들에게 말도 안하고 지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집도 망하고 집 없이 지낸 적이 있었어요. 수중에 돈 300만원을 가지고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지내는 데 학교는 다니고 있었어요. 어쨌든 학교 수업은 들어야하니까 아까와 같은 실험을 하면서 작업을 했죠, 그림 그리는 것은 좋으니까. 밤이 되면 여관방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밤에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그리는 것이 좋고, 무엇을 어떻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여관의 마크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여관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관의 마크를 보고 들어가는데, 여관 주인이 들어가자마자 '아가씨 부를거나', 혹은 여관 마크가 목욕탕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거주지이기도 하고 목욕탕이기도 한 이 곳이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 열이 받기도 하면서 마크의 열기가 새삼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상황이 봄이어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아지랑이 같기도 하고, 옆방에서는 다른 의미의 잠자리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마크를 보고 들어왔던 그 기호가 과연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적 경험에서 출발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기호들에 반응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적금지표시를 쪼개보기도 하고 교통 표지판이나 담배공사표지판을 쪼개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호들이 파편화되는 순간에 이것이 색면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과거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연결이 된다고 느꼈어요. 보는 것을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언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진 상황에서 의미에서 살짝 벗어나 다른 것으로 보이는 여지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림의 맥락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편화된 정도에 따라서 그냥 일상기호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흥미로워서 <BURST> 전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호 하나하나마다 어떤 점이 흥미로웠다는 것은 있지만 부각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윌링앤딜링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냥 구겼다 펼쳤다고 전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익숙한 기호가 낯설어지고 그 안에서 곱씹어보면서 그런 것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반응들을 지켜봤던 전시였습니다. 저도 한창 시도를 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구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약간 다른 경험이 있었는데 친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물

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서 경찰서도 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흥미롭다고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호도 제가 판단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이외의 것이 될 수 있듯이 사람들도 내가 생각한 것과 아주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와 굉장히 친하고 나를 믿어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가와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초상화 작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싶은 마음이 강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먼저 사람을 앉혀두고 드로잉을 하면서 30분 동안 내 눈만 바라봐 달라고 요청하고 그렸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사진을 그림과 중첩을 시켜서 드로잉 선에 맞춰서 붓질을 가해서 마치 번지듯이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작년에 했던 개인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해드렸듯이 그림이 각기 달라도 출발은 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들을 부각해보지 못했지? 편하게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에서 어떤 기호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달리 보게 되었던 경험들을 의미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어른거리는 좌표들> 전시 중에 하나인 '집에서 작업실까지 마주하는 나의 미래와 세계화'라는 작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는 집에서 작업실까지 매일 출근을 합니다. 간혹 가다 정해진 작업분량이 없어도 작업실에 나가는데, 이상하게 집에 누워 있다가 더 자고 싶고 가고 싶지 않다가도 작업실 가서 커피 내리고 담배나 한 대 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집에서 작업실까지 거리가 1.5km인데 그걸 걸어가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작업할지, 이 작업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런데 막연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의 최초 동기가 담배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KT&G인데, 'Korea Tobacco and Ginseng'에서 바뀌어서 'Korea Tomorrow and Global'인 거예요. 그게 웃기기도 하고 담배 피러 작업실을 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와 세계화라는 것과 나의 어떤 미래와 세계화, 작업실로 가는 것, 작업실로 가는 동안 볼 수 있는 담배 간판들이 아이러니하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1.5km 안에 있는, 제가 가는 동선에 있는 총 6군데, 14개의 간판의 위치와 높이와 크기를 수집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집에서 작업실까지 마주하는 나의 미래와 세계화'라고 정하고 지금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텍스트로 담배우린 물로 쓴 글자로 '한국의 미래와 세계화'라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동안 발견했던 담배 간판을 크기 별로 해체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마치 출근길을 걸어가듯이 경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업은, 저는 카스맥주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식당가서 맥주를 달라고 하면 카스를 대부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코의 냄새를 못 맡고 침의 맛을 모르듯이 어떤 기준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먹고 있었는데, 한 지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그 맛도 없는 똥맛인 그 맥주를 먹느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맥주 맛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먹어왔던 것 같다. 나에게 이 맥주는 맛이 없는 걸까, 진짜 이 맥주가 맛이 없는 걸까?' 이와 같은 질문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제가 먹는 카스의 양을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가 나왔던 술집에 갈 때마다 맥주병에 있는 라벨을 떼서 1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만큼 카스 라벨을 쪼개고 쪼개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양으로 먼저 시각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파편화가 되면서 글자가 다른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ass'에서 'Ca'만 떨어져 나와 반복되게 되면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애들이 똥이라 부르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C'가 달아나면 말 그대로 'ass'가 되어 또한 관련 단어가 되고, 그런 점이 재밌어서 이런 작업을 했었고, 그것을 더 강조해보기 위해서 완벽한 용어는 아니지만 'cass as ass'로 읽히게끔 유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시할 때 만 서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거리를 다니다 보면 보통 교통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속도제한 30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밑에 항상 보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수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표지판을 볼 때 운전자만을 위한, 속도 같은 것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저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주변 지인들이 너 서른 됐으니 큰일이다, 라고 놀리듯이 혹은 어른들이 경고하듯이 이 보조표지판의 기호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로 배치대로 수집을 하고 그 글자량 30이라는 숫자, 픽토그램은 그대로 놔두고 교통 표지판이라고 알게 하는 것, 바탕이라고 하죠. 원, 아니면 바탕 그런 것들만 해체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게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비꼬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보는 이미지는 별에 관한 작업입니다. 하루는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육교에서 오랜만에 하늘에 별을 봤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별을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목표나 지향점, 꿈,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어느 순간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방향 설정 없이 속력만 내고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집이 경리단길 쪽이다 보니 주변이 다 술집이고 가게에 술 박스에 별 마크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대에 제가 가르치기도 하는 학생들은 고개 숙인 채로 학습지에 별표 쳐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대에 적지 않은 노인들이 참고서나 폐박스를 모아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속도만 내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돼서 작업을 했어요. 학습지를 모아서 거기서 별표만 남겨둔 채로 잉크로 가려버리는 작업들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 박스, 컵받침, 라벨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다가 붙여서 일종의 밤하늘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처럼 설치를 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실에 혼자 있을 때 말없이 있는 편인데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크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저기서 일수카드 던지는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모습이 보곤 합니다. 그게 문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노크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일수카드들을 보면 긍정적인 글자들,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나 캐릭터들, 기호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것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선택적으로 보는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갈아냈습니다. 희망,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힘을 드립니다 와 같은 문구나 캐릭터들, 이런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갈아내서 물감의 안료처럼 만들어서 카드가 온 날짜에 맞춰서 해당하는 칸에 기록하는 달력작업을 했습니다. 달력작업은 제가 작업실에 온 일수이고 옆에는 작업실에 온 일수카드를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김인선 : 세부 작업 설명 감사합니다. 패널로 참석해주신 김성우, 김연용 선생님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김성우 : 저는 큐레이터로서 원래는 전시에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의 맥락 안에서 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성격의 전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과거와는 달리 작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전시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작업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포인트가 뭘까 그런 포인트와 코멘트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리 비공개 토크에서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정리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병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작업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조금 더 지역적인 것들, 특정 지역에 집중하며 발견하게 되는 도시개발의 문제라든지 개인적 관심에서 시작하여 여러 가지 보편적인 맥락으로 확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억과 경험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주'와 '역마'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주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이 작가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안에서 어떻게 접근을 함으로써 동시대미술 안에서 윤병주만의 예술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째로는 작가의 기억이나 경험이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작품의 저변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서 작가의 독자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킬 것인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작가가 어떤 개인의 서사

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작가 스스로가 객관적 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거리두기'와 같은 문제들이 창작 과정 안에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뒤에 사진이나 영상이나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자율성을 통해서 가상의 항로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병치하여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서사를 드러내는 다른 측면, 다른 차원을 교차하여 보여주는 것들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주체는 오로지 본인 한명이라는 것, 그것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서사나 기억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명의 행위주체에 의해 단편적으로만 보여질 때, 그것을 관객들이 어떻게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서사 구조 안에 개입해서 그것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연결하고 다시 보편적인 서사로 확장할 수 있을까. 즉 개인적인 서사라는 것들이 동시대에서 좀 더 얘기가 되려면 결국엔 보편적인 서사와 교차하는 어떤 지점에 고리를 걸고 시각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은 상당히 단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람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서사에 개입하여 엮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의문은 윤병주 작가가 지금이 전시에 주어진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성' 프로젝트처럼 좀 더 긴 기간을 갖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행위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발화자가 타인이 되는 그런 것까지도 현재의 작업 안에 같이 엮어 들어가면 서사의 구조가 더 단단하게 걸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엮이고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이 작업을 진행을 하실 지도 궁금해집니다. 비평이나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입장, 큐레이터로서 이 작가와 같이 전시를 한다면 내가 이 작가의 어떤 부분에 고리를 걸고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특정한 한 전시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작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와 같은 것들이 제 코멘트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경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가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준 태도나 언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독특하고 그런 태도가 작가 자신의 작품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경호 작가가 다루는 캔버스 위의 이미지나 기호 같은 것들은 의미전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또한 기술된 언어로 가둘 수 있는 속성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감각'과 '직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미전달로서의 이미지나 기호, 본인이 선택했던 상징 같은 것들이 본래의 그 의미에서 탈각되어 캔버스 위에서 껍데기처럼 부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렇다면 이 안에서 백경호 작가가 과연 감각과 직관에 어떻게 의존해서 어떻게 작업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백경호 작가가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나눌 때 시작과 끝을 정해놓지 않고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작가로서 자신의 캔버스 위에 아주 최소한의 룰이나 기준은 정해놓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백경호 작가의 작업을 '환유적인 제스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미지들이 꼬리를 이으면서 일어나는, 연쇄작용의 관계 그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가 생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벗어나 그것을 반입체와 같은 방식으로 조형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론을 보여주는데 그 역시 평면을 입체로 확장시키는 구조들의 연결 자체에서 가능성, 의미들을 탐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창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회화를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회화적인 습성을 버리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경호 작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회화작가인 것 같아요. 특이점은 작업의 시작이 개인적인 스토리로부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호라는 것이 사회, 정치, 문화, 역사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어떤 의미로부터 떼어내어, 본인이 그 이미지나 기호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고 소비를 하며 내가 관계 맺는 누군가와와의 정서적, 심리적 간극을 재기 위한 형태로서 기호와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었던 부분은 수행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시를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명함에서 본인이 남기고 싶은 이미지만을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오랜 시간 갈고 또 갈아서 물감의 재료로 쓴다거나, 다른 작품들에서도 본인이 기간을 정해두고 모았던 것들이나 일상에서 접하는 장소를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보았던 것들, 그러한 반복적인 일상의 시간 속에서 습득한 것들을 고유한 방법론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호로 치환시키는 부분에서 수행적

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개인적인'이라는 것들이 치환된 하나의 기호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명확하고 강력하게 작가가 작품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이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을 통해 수집된 이야기들, 개인의 기억과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이 축적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명한 하나의 기호로 축소시켜 버릴 때 그 선택한 기호나 이미지가 과연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담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결국,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부터 사회속에서 개인이 바라보는 판단과 인식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어떤 기호나 상징이 관념적으로 갖는 의미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해 기호들을 분해하며 해체하고 선택적으로 남겨서 다시 그것 재조합하여 드러내는데, 그렇게 나온 간명한 시각적 이미지들이 지금까지 언급해온 개인적인 기억이나 경험, 관계와 같은 것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것이에요. 동시에 형식적으로도 주변에 깔린 이야기들을 고도로 압축하고 응축하는 방식을 택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개념적인 방법론을 택해야 할 때는 작가의 '회화적임'이라는 형식이 조금은 덜어내져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작가도 그런 형식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작가와 패널이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는 사전미팅을 가졌었어요. 사전미팅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김성우 큐레이터가 말씀해 주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백경호 작가의 경우는 텍스트화 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몰두해 있고 그 표면을 어떻게 재밌게 표현해 나가느냐에 대해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천창환 작가의 경우는 회화적인 작업을 했는데 아주 잘 정리된 어떤 형식으로 나와서 개념작업으로서의 결과물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회화로서의 결과물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느끼는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천창환 작가 작품의 저 부분이 너무 설명적이지 않은가, 라거나. 윤병주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설명할 때 연결지점을 말씀해주셨지만 단편화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우 : 백경호 작가님 페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작가의 작업에서 회화를 논하기보다는 백경호 작가가 생각하는 '회화적인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백경호 작가가 작업을 할 때 제한하는 최소한의 룰이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했던 것은, 작가 본인이 회화작가로서 회화적인 것 안에 포괄할 수 있는 것, 포함할 수 있는 것,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결국에는 일종의 '정치'적에 빗대어 표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카테고리화, 범주화할 수 있는 것 자체, 예를 들면 현실의 '남자'와 '여자'라는 분류와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특정 기준과 같이 회화 안에서 절대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준들 자체를 작가가 '회화적임' 안에서 해체하고 재배열하고 재카테고리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술 작품,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화라는 매체 자체의 내제적 운동성이 발생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 그 자체를 작가가 계속해서 해체하고 확장을 하고, 재조합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행위 자체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같은 회화이지만 천창환 작가와 많이 다르다고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비슷한 부분은 비유나 상징 같은 것들의 사용에 있어서 규범화, 관습화, 관념화되어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의미로부터는 거리를 많이 두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두 작가를 비교해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김연용 : 저는 세 명의 작가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동안 선배작가로서 느껴왔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전시만을 통해 세 작가의 작품을 특징하게 범주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가로지르며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미지를 다루는 문제에 특별히 주목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는 나름대로 이미지를 다루며 그것을 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미지의 당대적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뚜렷한 방법들이 엿보여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대한 생각들에 있어 지난 작업들을 포함하여 각자 미묘한 차이를 갖는 것 같아 이를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하며 앞선 이미지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전시와 작업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관점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겹쳐진 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양태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각자 나름의 구체적인 작업으로 전개해 나아갈 때, 특히 두 번째 말씀드렸던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이 작가들이 꽤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은 이미지를 다루는 것과 매체를 다루는 것의 어떤 접점에서, 일종의 타협의 지점에 그들이 위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작가가 보여주는 어떤 예술적 결과에서 제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은, 일종의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련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에서 그들의 미학적 질문들이 가져다주는 의외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를 다루는 각자의 차이만큼 매체에 대한 당대적 질문의 참여함이나 그 다양성은 매우 희미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미학적으로 어떤 논쟁적 질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다루는 매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를 향한 질문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에 상응하는 실험에 대해서는 더는 나아가지 않으며, 작업 결과물의 수용에서 생기는 감상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작가 자신의 문제가 작업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인 거 같아요. 그동안 그들의 변화된 작업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들이 회화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혹은 평면이라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진이라는 매체는 자신이 다루는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그들이 가진 예술의 출발점이자 구체적인 작업의 변별점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시 자체에서도 그것은 실제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이미지의 문제로 끌고 와 얘기해보자면, 이미지를 다룰 때, 윤병주 작가 같은 경우, 처음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화성' 시리즈로 작업이 변주되는 과정에서, 작업의 출발점 자체는 우리가 부지불식간 취하는 이미지에 대한 편견이나 관습적인 이미지의 소비 방식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화성' 시리즈는 그러한 맥락의 정점에 놓인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미지에 관련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매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천창환 작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라든지, 그 기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관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왔다고 보입니다. 작업은 바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지요. 백경호 작가는, 이전 작업을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들을 파편적으로 참조해서 화면에 재배치하잖아요. 그것은 일종에 동시대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재의 방식을 특정한 감각이 경합하는 영역, 즉 회화적 영역으로 환원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새로운 작업에서 보면, 얼핏 뭔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들이 단지 유사한 형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마띠에르나 추상적 표현들의 자율적인 배치는 이미지 일반에서 회화적 요소들로, 즉 질감이나 감각의 분할과 그것의 배치의 문제로, 여기서 배치는 이미지의 자율적인 전개로 바뀌었지 회화적 구조에는 사실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대신 전자가 보다 환영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국한한 문제라면, 마띠에르에 집중하거나 추상적으로 접근해 나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촉각적이고 감각적인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고, 시각적인 것을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가져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화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과 접근에 있어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 작가의 이번 전시에서 작업의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단지 그간 해왔던 것을 조금은 지루하게 반복하는 듯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의 문제나 매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질문들은 마치 정해진 답처럼 보였고, 어느덧 그것은 이미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전제됩니다. 오늘의 이 작가들은 단지 그 안에서, 안온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김인선 :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주 : 그런데 지금 이 전시가 Reunion이라 해서 보고전의 형식을 띄고 있는 전시이고 2년간의 성과나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꼭 변해야 한다는 전제를 2년 전에 깔고 간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선배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2년 동안 확 변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인선 :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2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문법이 변하는 게 작가마다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꾸준히 해오는 어떤 시점에 어떤 부분을 보여줄 때는 아주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의 기대치에 대한 궁금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용 작가님이 항상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지적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연용 작가님의 시각이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윤병주 작가님이 사진을 다루는 방식이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다루는 변화의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용 : 이것은 저희가 사전 미팅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화성' 시리즈에서 이번 작업으로 바뀌면서, 중간에 아이디어를 들고 저에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대항해 시대>에서 GPS 신호에 따라 동선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사진들이, 그것은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진들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진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포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불과 10년 전과 비교만 해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진을 단지 이미지만으로 생산, 소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나 GPS 신호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 폰을 보면 사진이 인물이나 장소, 사건에 따라 분류가 되고, 또 다른 정보 체계에 따라 이미지가 끊임없이 재배치되는 것처럼, 이 작업은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러한 이미지 재편의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그 잠재적 가능성이 엿보였어요. 작업 진행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지점이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는데 그 부분이 더는 전개되지 못했고 결과물에서도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세 작가가 2년 전에 작업을 시작할 때 기록한 본인의 작가 노트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찾아보면 주로 매체에 관련된 당대적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개인의 어떤 경험과 기억, 그것들을 지극히 서사화해서 작업 안에 적용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건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발생한 일들인데, 너무 일관되게 인과관계가 부여되어 있어요. 지난번 사전 미팅 때도 그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단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둔갑한 채 이동했지, 어떤 구체적인 탐구에 의한 질문을 통해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 말하자면, 왜 매체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천착해 왔던 작가들이 갑자기 개인의 서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가졌던 이미지와 매체에 대한 작업의 강도만큼, 그들에게는 동시대 미술에서 개인의 서사, 사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문들, 유효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당대에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제기, 그런 질문들이 작업 내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조금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전의 천창환 작가와 백경호 작가 두 분에 개인전을 진행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페인팅과는 다르게 어떤 시도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천창환 작가는 원래 평면 이미지인데 구겨가지고 표면에 움직임이 생기면서 두께감과 부피감이 생기면서 평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서 평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백경호 작가 같은 경우는 동그란 캔버스에 표정을 담고 몸통 같은 부분과 조합하면서 공간 안에서 페인팅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조형성을 집어넣어 실험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시도하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루었던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시선을 가지고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는 단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우 : 그 전에 창작의 동인 자체가 매체에 대한 고민이었으면, 지금은 창작의 동인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작가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변화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김연용 작가님은 작가시니까 매체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이, 어떻게 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결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틀로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또는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꼭 더 좋은 쪽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이거든요. 현재의 시도 다음이 꼭 더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좋다라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기도 하고요. 결국, 개인이 지속하던 매체를 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부로부터 학습된 것들, 기존의 고정된 틀 같은 것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어떻게 새롭게 조직하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을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위해 그 기준들을 바꾸는 것, 물론 겉으로 매체적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것만으로 꽤 많은 변화와 또 다른 힘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들어세요.

천창환 : 저로서는 매체에 대해 확실히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쪽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때 PT&Critic 할 때도 당시의 패널들이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물감은 어떤 것을 쓰고, 화면에 어떤 젯소를 바르는 것이 더 이렇게 될 텐데' 하는. 저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기억이랑 경험 자체를 더 정리를 해보고 내가 왜 이것 하는지 물론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보수적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업 자체가 예전에 봐왔던 그림처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익숙한 대로 보려고 하는 것을 건드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보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에 따라서 정리해 보려고 노력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김인선 : 오히려 매체에 변화를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경호 작가는 훨씬 보수적인 입장이긴 하죠.

백경호 : 제가 보수적으로 느껴진다. 매체를 부정하면서 전위적인 모습 보다는 내밀한 면을 표현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보수적이라는 말이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대의 다른 작가 이미지들도 보고 이전에 역사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시간대 별로 보곤 해요. 예전에는 전위적으로 기존 매체를 부정하면서 힘을 얻은 유명한 작업들 있잖아요. 그전에는 뒤집으려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나서 현재, 매체를 부정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싸울 상대가 없어요. 이전에 부정할 만한 것이 없고 대표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후발 주자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항상 있었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는 작업도 그러한 방향성을 띠는 중간 결과물들이에요.

김인선 : 저는 비슷한 태도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것을 지향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매체를 계속 탐구하는 태도가 지금 세대의 경향으로 읽히기도 하곤 합니다.

김연용 : 제 말은 꼭 앞 세대에 대한 부정의 방식을 통해 예술을 진보적으로 끌고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물들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더라도 그 안에서 경합하는 사유와 실천들, 작업을 이끄는, 혹은 예술적 방향의 구체적 질문이 되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첨예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김인선 : 제가 얼마 전에 두산 갤러리에서의 <사물들: 조각적 시도>전을 매우 재밌게 봤거든요. 그 전시의 아티스트 토크를 보면서는 세대 간 다를 수 있는 감각이나 언어인가 싶기도 한데 전통조각에서 행하던 방식에 대응할만한 첨예한 연구태도를 명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김연용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그런 감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용 : 비슷한 것 같아요.

김인선 : 비관적으로 본다고 보다는 작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의 세계가 따로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독특함이 있는데 새로운 감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같은 게 아닐까요.

관객 : 아까 백경호 씨가 말한 '싸워야 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작가들을 만나봤는데 싸워야 할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좌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도 안하고 그것이 아니면 싸워야 할 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바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적까지 구체화 해가면서 싸워야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많은 작가들이 해왔었던 것들이 예를 들면 피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작가들이 피카소를 향해서 날을 세우면서 첨예하게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인식해오는 어떠한 것들을 파헤쳐가는 그 지점을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설정 자체가 작은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질 것은 없고 저성장의 시대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실패와 좌절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변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살기 힘들고 그림 그러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작업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나의 예술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거죠. 거기에 대한 변명은 세상이 이렇게 때문에 나의 예술은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내가 싸워야 할 적은 사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싸워야 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를 자강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변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전시 되는 작업들이 흥미롭지 않는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예술에 대해서 나의 예술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는 작가들과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예술이 대단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해 같이 갈 수 없다면 예술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제가 백경호 씨 작업을 봤을 때, 굉장한 투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호 씨 작업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나면 자기가 실패할 줄 알면서 계속 실패하는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계속 없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잖아요.

관객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그 때 뉴욕 갔었던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때 받았던 인상은 아 이 사람이 회화에 푹 빠져있구나. 싸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회화에 있어서 싸움을 걸기 보다는 회화에 푹 빠져있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백경호 :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방식 전에 역사의 어떤 면을 싸울 수가 없으니까 왜소해진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PT&Critic을 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매체에 대한 전복적인 시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수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싸움이야기는 친구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군가에는 마음속에는 마스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어떻게 작업할지 이야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걸 즐거운 일이지 괴롭거나 슬픈 것이 아니거든요. 제 태도나 느끼는 점이 싸움보다는 실험에 더 가까워요. 해보고, 관찰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관객 : 백경호 작가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하나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전에 하셨던 인터넷 이미지를 가져와 하는 작업들부터 지금까지 쪽 봐왔는데, 확실히 저는 그때의 작업과 지금의 작업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점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의 계속 하고 계신 작업을 보면 매체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작가 본인은 그런 의도나 의지는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회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전복적인 지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김연용 작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띠에르에 대한, 저런 것들이 마치 대단히 회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최근에 하신 작업들에서 과연 정말로 저런 것들이 회화적인가, 구상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이미지와 화려한 색채와 마띠에르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의 얼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의 원형의 스마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우기 위해 채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작가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다보니 독특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마음껏 채운 느낌이 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저 스마일이 중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회화를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기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 극단적으로 얼굴의 형상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새롭고, 전복적이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회화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껏 회화적이라 생각되는 기법을 동원해 화면을 채워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과잉이 돼서 회화라는 매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싸워야할 적이 없다는 지점에 대한 논쟁이 오갔는데 저는 작가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는 게 지금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 시리즈가 시작되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분명히 어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포맷의 변화가 있고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의 시리즈를 계속 하실 건지, 저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경호 :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채워야 해서 채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 시리즈를, 이 구성의 연작들을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전에 형식에 대한 실험들을 대학 때부터 쪽 해왔어요. 그리고 2016년에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 중에 하다 만 것들이나 아쉽게 중간에 그쳤던 것들을 다시금 해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예전에 폭 넓게 다루건 아니지만 저를 어색하지만 저를 닮은 것 같아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한 것이 이 시리즈였어요. 사실 원형 캔버스에 표정을 담는 것이 처음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전통적이고 품위 있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했지만, 제가 그림에 빠져서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나오는 작업의 결은 경망스럽고,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면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도드라지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작업을 할 때 이성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않고 폭 빠져서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긍정적이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겠다, 이를 되려 발전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현재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욕심이 있어서 많이 진행을 하고 나서 생기는 변화나 쌓이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연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작품군이 쌓일 수 있게 시간을 좀 두고 다작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경호라는 작가가 태도나 작업에서 드러나는 것이 작가 자체와 굉장히 매치가 잘 된다고 할까나, 작가와 작품이 한 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구성하고 계산하기 보다는 그냥 일상의 몸짓, 적합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품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천창환 작가의 작업에서는, 현재 작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데에 있어서 디테일한 간격까지 다 계산을 해오셨거든요. 같은 회화를 하는 작가들이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김연용 : 마지막으로 제가 작가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모두 개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일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이야기에 기반을 두어, 자기 생각의 변화를 작업화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재맥락화시켜 그것이 작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건, 왜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 작업에서 중요해졌나요? 그것은 각자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작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본인의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건 아닐까요?

천창환 : 원래 작업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형식주의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과 무언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나도 개인적인 사소한 관계라든지,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개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저에게 집중하고 제가 할 일을 하고 나름 소심하지만 의지를 보이고, 그런 것을 전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보고, 다행히 그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저는 좋고, 그런 정도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름대로 2년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윤병주 : 매체성이 강한 장비,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흥미가 매우 있는 편이고 이번 작업에서 개인의 서사를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심이 더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녹여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대로 완벽히 구현하진 못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개인의 서사를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편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발전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재미는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다 보니, 그 전에는 매체성이 강한 작업들이 많았고, 그것을 꼭 역전하거나 전복한다고 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탐구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RC카를 이용하는 유쾌한 부분도 이용하려고 했고요.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요즘의 것들을 많이 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일종의 방식으로 관심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분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취해서 고민하는 지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관객 : 세 작가님들이 살짝 나이를 언급하셨어요. 30대 중후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갓 30대에 접어드셨는데요.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작업에 대한 진지함이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짐작했었어요. 윤병주 작가의 '화성' 전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봤는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손에 꼽을 만큼 그 때 본 전시 중에 인상 깊었고요. 이번 작업을 보고 같은 작가임을 못 느낄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저는 전기가 필요한, 전기를 거쳐야 하는, 혹은 렌즈를 통해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동질감도 많이 느끼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 어떨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매체 자체가 워낙 제한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렌즈를 통하거나 컴퓨터를 써서 만드는 작업이 회화작업을 하시는 다른 두 작가님과 다르게 차별성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그 지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패널 분께서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업장이나 환경이나 지역에 대해서 작업을 표출하시는 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작가로서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내가 직접 냄새 맡고 보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닌 요즘 젊은 작가들이 많이 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본 정보로 얘기하고 작업으로 써먹으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다녀 본 것 중에서 좋았던 지점이나 경험에 대해서 짚막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르헨티나나 화성은 사람들이 아는 지명이고 알고

는 있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경험했을 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장소, 어떻게 보면 작업으로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작업으로 얘기하지 못한 여기는 여러분이 아는 것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은 있나요?

윤병주 :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르게 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화성도 그렇고 뻘하거든요. 난개발이 화성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것을 다르게 본다는 게, 최근에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역지로 다르게 보려고 하고 열심히 "다르게 봐야지. 다르게 봐야지" 하는 시각적인 혹은 생각적인 전환을 가지려고 역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0살 때부터 이사를 다니고 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 환경 안에서, 이슬람 작업을 할 때까지도 자연적으로 환경 안에서 신선하게 보이거나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선하게 보였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데 순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이지. 보편적이나 일반적인 것들. 개인적인 감성이나 스팟들은 있겠지만 별개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김인선 : <화성>시리즈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의)화성을 보여줬던 것이잖아요. 윤병주 작가도 그렇고 다들 가본 적 없는 화성이란 곳에서 나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을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보다는 객관화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 포인트로 작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항해 시대>에서 여기저기 이국적인 데에 맞는 이국적인 풍경 같은 것들을 골라 오신 것처럼 화성이라고 하면 (우주의)화성으로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장면을 캐치한, 굉장히 객관적인 이미지를 선택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가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모르는 화성이 아니라 내가 아는 화성, 내가 아는 이국적인 듯한 폭포, 이런 식의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구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해요.

관객 : 처음에 김인선 선생님께서 영화<몽상가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이 재미있었는데요. 보수적인 어른들 입장에서 몽상가들을 본다면 젊은 애들이 모여서 대마 빨고 섹스하다가 데모하러 나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권인 386세대가 이 몽상가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그 감수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제 기억으로는 386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 의식은 시대가 마치 이 문제를 느꼈던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어떻게 뭐 사랑타령이나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적을 대하는 감수성의 차이가, 투쟁의 방식이 조금 더 감정적인 색깔이 달라졌음을 느껴요. 마치 386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랑을 논할 수 있느냐 했던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의무감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런 투쟁을 쿨하게 해야 하고, 아니면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작품을 읽어 본다면 세 작가 분들의 작업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삶의 굴레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관객으로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연대감을 느꼈어요. 질문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김성우 : 관객(신기운 작가)분께서 제가 아까 윤병주 작가님한테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김인선 선생님께서는 '객관적인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신기운 작가님이 우리가 기존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실제로는 많이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장소나 그런 것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화성도 많이 객관적인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애초에 어느 정도 작가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작업 중에 사진으로 기록해서 보여준 단편적인 것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김인선 : 아, 저는 우주의 화성을 얘기한 거였어요.

김성우 : 제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는 이 단편적인 조각들을 전시장에 이렇게 놔두고 그것들이 어떤 모종의 연결을 통해 어떤 서사나 얘기들로 확장이 되는 구조라면, 작가의 시선과는 다른 온도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단편적인 조각, 그러니까 작품의 구성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행위의 주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가 서사의 앞뒤 구조만 만든 상태에서 특정 디렉션을 누군가에게 제시하고 그 행위의 주체, 발화자로서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래서 작가의 직접적인 행위나 언어와는 조금 다른 온도의 것들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작품 안에서 함께 묶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 안에 다양한 톤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들거든요. 그래서 윤병주 작가가 이러한 시도, 작품의 창작 및 구성에 있어서 다른 행위의 주체의 것들을 수집을 하거나 개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특히나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것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윤병주 :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점집을 가서 무당이 저한테 일종의 조언 내지는 답이 될 수 있고 당신은 서쪽을 가야 된다, 라는. 제가 미신을 믿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타의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흥미를 갖기도 하고 작업에 녹여낼 수도 있다면 그 녹여내는 것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상에서 서쪽으로 가는 지시를 따라가는 것도 자의적인 행동에 가리지만 그 안에 그 과정을 있도록 하는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작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작용들이 알게끔 모르게끔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슬람이나 화성작업도 나사를 차용한다든지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제게 어떤 기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성격이 그런 것들에 맞닿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인선 : 점을 본다는지 하는 내용은 작가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말하기 전에는 남들에게는 관심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제목이 예를 들어 <서쪽으로 가자>라면 왜 서쪽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시의 경우 세계일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녹여냈다고 하기에는 작품에 얽힌 '이야기' 정도에서 그칠 수 있죠.

윤병주 : 원래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선발에 부각시키고자 했었죠.

김인선 : 오랜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